

1. 회의 개요

- 가. 주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- 나. 일시: 2010년 5월 27일 (화) 07:00~09:05
- 다. 장소: 서울, 조선포텔 2층 코스모스-바이올렛 룸

2. 주 제: "글로벌 거버넌스: 도전과제와 G20" (Global Governance: Challenges and the G20)

3. 초청인사: Dr. Colin Bradford (Senior Fellow, Brookings Institution, U.S.A.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(CIGI), Canada)

4. 프로그램

-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- o 07:00 - 07:30 조찬환담
- o 07:30 - 07:50 발제(Dr. Colin Bradford)
- o 07:50 - 09:00 질의응답 및 토론
- o 09:00 - 09:05 폐회

5. 회의 주요 내용

□ 지난 2010년 4월 21~22일 한국의 KDI와 캐나다의 CIGI는 워싱턴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음. 그 회의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Colin Bradford 박사가 한국의 G20 준비위원단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였음.

□ 서울 G20 정상회의 및 G20의 새로운 제도적 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표성(representativeness)과 효율성(effectiveness) 간의 조화를 찾는 것임. 둘 사이에는 tradeoff가 존재함.

- o G20 회의에 더 많은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은 대표성을 얻는 대신 효율성을 잃

는 것이며, 반대로 G20 회의에서 다른 non-G20 국가들의 입장을 배제하는 것은 의사 결정에 효율성은 얻을 있으나 G20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.

- 따라서 한국은 회원국 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non-G20 국가들,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□ 비록 경제 위기 대처 방안 마련 및 극복을 위해 G20 회의가 시작된 만큼 그 동안 G20는 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이슈를 다루어 왔지만,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.

- 금융 위기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.

□ 따라서 G20에 관해서는 먼저 정치적 혁신을 논의해야만 함. 정치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개의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음.

- G20 회의에 참석하는 각 회원국 리더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마련 및 각국의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.

- G20 회의에는 각국의 20명의 정상들만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며,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는 장인만큼 G20보다는 새롭게 L20라는 용어를 제안하는 바임.

- L20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G20가 갖는 대표성의 배타적인 느낌을 없애고, 기존의 재무장관들 및 중앙은행장들이 함께하던 G20 회의에서 벗어나 금융과 경제 관련 이슈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, "Leader"들만의 회의로서의 의미를 강조시킬 수 있음.

- 또한 리더들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으며 더욱 tangible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음.

- 기존의 G20와 IMF 간의 alignment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며, 이는 곧 193개의 IMF 회원국이 갖는 대표성과 20개의 G20 회원국이 갖는 대표성과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음.

- G20 회의를 정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각국 정상들이 공식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- 세부적으로는 G20 회의의 둘째 날 오후에 회의를 끝내는 대신 저녁에 만찬을 열어 각국 정상들과 기자들, 장관들이 모두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음.
- o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데 모여 11월 개최될 서울 G20 회의 및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- o G20 회의는 정치적 모임인 만큼, 각국에서는 전략적으로 G20 회의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회의 결과가 주는 함축적 의미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함.
- o G20 회의에 각국 의회 및 국회(parliament)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적 관심사와 국제적 관심사 간의 gap을 줄이도록 해야 함.
- o G20 회의 마지막에 있는 press conference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언론과 정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G20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임.
- o 마지막으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.
- 하나의 방법으로 'outreach'라는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'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한 일'이라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임.

□ Non-G20 국가들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G20의 framework 확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G20 회원국들이 해야 할 일임. 물론 각 국가마다 관심사는 각양각색이지만 그들이 모두 공감하는 글로벌 경제 문제나 글로벌 관심사를 framework에 반영시킨다면, G20의 존재도 더욱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감대도 넓힐 수 있음. 그들에게 개인적인 목표나 관심사보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 극복이 우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.

□ 또한 기존의 G7이나 G8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. 기존의 framework, IMF와의 관계 등에서 모두 벗어나 지금의 글로벌 경제에 있어 더욱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함.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획일성(Uniformity)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G20의 정당성 확립 및 정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.

□ 앞으로 G20 준비 위원회에서는 학계, 정계, 언론, 대중들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여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. 특히 KDI 등과 같은 연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.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G20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non-G20 국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, 또 이들이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□ G20은 'G8+ 12'의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, G8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 협의체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G20은 비로소 정례화될 수 있을 것임.